

전문상담

성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수퍼바이저 : 수희는 길리건(C. Gilligan)의 보살핌-기반 도덕성 발달의 (㉠) 단계에 있는 것 같군요.

3.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습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과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오 교사: 오늘 연수 시간에 학습과 관련하여 일반화(generalization)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곽 교사: 특정 자극과 특정 반응이 연합된 뒤에는 한 번도 짝지 어진 적이 없는 자극에 대해서도 해당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초등학교 때 스티커를 받으려고 반응하던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상점을 받으려고 반응하는 것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교사: 이러한 일반화와 차이가 있는 (㉠)도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곽 교사: 그렇지요. 학습 상황에서 훈련한 자극과 새로운 자극이 다르다고 인식할수록 (㉠) 정도가 크겠지요. (㉠)이/가 잘되어야 특정 학습 상황에 필요한 반응이나 행동을 수행하게 되겠지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은 일반화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때, 자라와 솥뚜껑을 구별하게 되면 (㉠)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오 교사: 그렇군요. 오늘 연수 내용과 일상생활을 연결해 보니, 관찰학습 부분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TV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특정 코미디언을 흉내 내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곽 교사: 선생님 학교도 그런가요? 우리 학교도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오 교사: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그랬는데, 학생들이 서로 모방하고 관찰하면서 행동을 빠르게 배우고 따라 하더군요.

곽 교사: 오늘 연수 시간에 나왔던 반두라(A. Bandura)의 관찰 학습이 떠오르네요. 학생들이 서로 모방하고 관찰하면서 학습하는 것에도 일종의 유전적 특성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 교사: 연수 시간에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뇌에 존재 하는 (㉡)이/가 모방과 관찰학습의 중요한 작동 기제가 된다고 했지요.

곽 교사: 맞아요. (㉡)은/는 동물이 그 동작을 하는 다른 누군가를 관찰할 때 흥분되는 신경세포를 지칭하잖아요. 아이들 사이의 유행 현상에도 (㉡)이/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4. 다음은 민호(중1, 남)의 담임교사가 전문상담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담임교사: 민호가 혼자 있을 때는 잠전한 편인데요, 모둠학습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말하는 중에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주제와 관계없이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친구들과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라서 현장학습과 모둠활동이 많은데 아이들이 민호와 함께 하지 않으려 해서 걱정입니다.

상담교사: 민호의 종합심리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기능이 일반적인 중1 아이들에 비해 조금 떨어져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행동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임교사: 학부모님 면담 시간에 민호 어머니께서 민호가 ㉠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라고 하시던데 그런 행동을 배울 수 있나요?

상담교사: 네,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지능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민호의 경우에는 문제행동의 단서나 자극이 되는 선행사건(antecedents), 행동(behavior), 후속 결과(consequence)를 관찰해서 자신의 행동이 더 이상 후속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중재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이)라고 부릅니다. 행동수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은/는 조작적 조건형성의 원리를 특정 행동의 개선에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 중재 때문에 나온 것인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접근 방법이죠.

담임교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행동을 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군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막막했는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작성 방법>—

- 밑줄 친 ㉠의 진단 기준이 되는 웨슬러(D. Wechsler) 지능검사 4판의 FSIQ 점수 구간을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5. 다음은 수지(중2, 여)에 대해 전문상담교사가 수퍼바이저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상담교사: 수지가 자꾸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서 걱정입니다.

수퍼바이저: 어떤 행동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나요?

상담교사: 신고의 내용을 보면, 수지가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 주면서 친해지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친구를 따돌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간질을 한다고 해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기 멋대로 굴기도 하고, 자기랑 놀자고 시도 때도 없이 졸졸 따라다니고, [A] 원하는 대로 해 줄 때까지 괴롭힌다는군요. 당하는 아이가 힘들다고 그만하라고 울며 애원해도 자신이 더 힘들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슬퍼서 죽었으면 좋겠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끔 섬뜩한 욕설을 하기도 하구요.

수퍼바이저:品行장애로 진단되는 남자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반면에 여자 아이들은 관계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DSM-5-TR의 진단 기준이 남자 아이들의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의 관계적 공격성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담교사: 그렇군요. 아이들이 말하기를 수지가 욕설을 하니까 ㉠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를 못 참아서 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작성 방법>

- 수지의 행동을品行장애로 진단할 때 간헐적 폭발장애가 아닌 이유를 [A]에서 찾아 쓰고, 이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수정판』(DSM-5-TR)의 간헐적 폭발장애의 진단 기준을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양극성장애와 공존하지 않는 아동기 정신질환의 명칭을 DSM-5-TR에 근거하여 쓰고,品行장애와의 공통점을 서술할 것.

6.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미나(고2, 여)와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상담교사: 오늘 마음이 어때요?

미 나: ㉡ 어제 시험을 쳤는데 망쳤어요. 이번 주 시험 모두 망쳤어요. 앞으로 저는 계속 시험을 망칠 거예요.

상담교사: 이번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군요.

미 나: 네, 공부하는 게 정말 싫고, 이제는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상담교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 나: 시험이 끝나고 옆자리 친구가 저 보고 시험 잘 쳤냐고 물어보았는데 못 봤다고 하니 속으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상담교사: 친구들이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친구가 비웃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미 나: 모르겠어요. 어제 시험도 망쳤고, 시험 결과를 보시면 부모님께서 무척 실망하실 거예요. 친구들도 저를 비웃고... (눈물을 흘린다.) ㉢ 저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어제 자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작성 방법>

- 아론 벡(A. Beck)의 인지행동치료를 근거로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왜곡된 인지의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서술할 것.
-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밑줄 친 ㉢에 나타난 예시를 제외하고 2가지 서술할 것.

7.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박 교사: 지금 학교에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 한 학생이 집단상담 도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중간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집단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큰일이에요.

김 교사: 그래요. 선생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 저도 지금 집단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아버지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담임교사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두 학생의 이야기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박 교사: 그러셨군요. 집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향상될 수 있었겠네요.

김 교사: 맞습니다. 두 학생이 집단상담에 더 집중하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박 교사: 저도 집단상담에서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기법을 활용해 보아야겠어요.

—<작성 방법>—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집단원의 권리가 무엇인지 쓰고, 이때 집단상담자의 옳은 대응 방법을 1가지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서 김 교사가 사용한 집단상담 기법의 명칭을 쓰고, 이 기법의 기대 효과를 위 대화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 1가지 서술할 것.

8.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와 유진(고1, 여)이의 담임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담임교사: 우리 반에 엄마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진이라는 다문화 학생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더 배려한다고 수업시간에 “잘 알아듣고 있니?”, 급식에서 매운 음식이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이 나오면 “먹을 수 있겠니?”하고 자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유진이가 차갑게 “선생님, 저도 한국 사람이예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상담교사: 선생님,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겠네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종종 하는 실수이죠. 이것을 (㉠) (이)라고 해요. (㉠)은/는 상담 장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과제를 준다든지 보호자 동의서가 아니라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게 (㉠)에 해당되죠.

담임교사: 그렇겠네요.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확대되면서 교사들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상담교사: 맞아요. 모든 문화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 자신이 속한 문화나 내가 가진 관점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내담자의 문화에 대해 주의 깊고 사려 있게 반응해야 하고 이러한 점들을 평소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담임교사: 맞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같은 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교과를 가르치는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상담교사: 네, 그럼요. 슈(S. Sue)라는 학자가 제시했는데요, ㉢ 과학적 사고(scientific mindedness)와 ㉣ 역동적 조정(dynamic sizing)이라는 기술이에요.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슈(D. W. Sue)의 관점에 근거하여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밑줄 친 ㉢과 ㉣의 개념을 순서대로 서술할 것.

9.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중에 감각과 지각에 대해 토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권 교사: 오늘 학습공동체에서는 감각과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심리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박 교사: 감각과 지각 중에서 지각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권 교사: 맞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물리적 세계의 환경적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일정하게 지각하고 있죠.
 박 교사: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지각하는 것을 지각적 조직화라고 하잖아요.
 권 교사: ㉠ 형태주의 심리학이 지각적 조직화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죠. 인간이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인식 가능한 형태로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박 교사: 그렇죠. 지각적 조직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 원리잖아요. 예를 들어 근접성은 ㉢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을 묶어 인식하는 것입니다. 유사성은 ㉣ 비슷한 ‘모양’, ‘크기’, ‘색상’ 등을 묶어서 인식하는 것이고요.
 권 교사: 연속성은 ㉤ 빈 곳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채워서 전체를 완전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잖아요.
 박 교사: 그러한 원리를 통해 인식된 지각 정보에 대해, 우리가 모든 정보를 의식하고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 교사: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각 정보 중 일부만 의식적으로 지각하게 되죠. 이를 (㉥) (이)라고 하지요.
 박 교사: (㉥)와/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파티에 참가한 손님들이 수 많은 말소리 중에서 오직 한 목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칵테일 파티 효과잖아요.

—<작성 방법>—

- 밑줄 친 ㉠과 관련하여 벤더(L. Bender)에 의해 개발된 심리 검사도구의 ‘구성’을 수량과 형태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밑줄 친 ㉢~㉤ 중 틀린 것 1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쓸 것.
- 인간의 지각 과정과 관련하여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10. 다음 (가)는 전문상담교사가 수혜(고1, 여)와 수혜 어머니를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상담한 내용을 이론적인 관점으로 개념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혜는 최근 아버지의 사망 이후 부쩍 짜증이 많아졌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SNS를 하고 있다. 수혜는 겉으로 편한 척 했지만,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어머니는 달라진 수혜의 태도가 불편하고 맘에 들지 않았다. 남편의 사망으로 일이 바빠졌으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해지기도 하였다. 집에 오면 괜찮은 척을 했지만, 수혜가 사소한 일에도 엄마 때문이라며 짜증내는 행동에 ‘나도 너 때문에 화가 난다’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수혜와 수혜 어머니는 서로 화를 내며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버지 사망 이후 갈등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상황이다.

(나)

• 전략적 가족치료(밀란(Milan) 모델):

- (원인) 수혜와 수혜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이후 서로 간에 (㉠)을/를 하고 있음.
 (개입) 상담교사는 수혜와 수혜 어머니가 (㉡)을/를 멈추고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정서와 사고 차이를 상호 이해 하도록 순환적 질문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사티어(V. Satir) 가족치료:

- (원인) ㉢ 수혜와 수혜 어머니 모두 동일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음.
 (개입) 상담교사는 수혜와 수혜 어머니에게 가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도록 가족조각을 권해 볼 수 있음.

—<작성 방법>—

- 밀란(Milan) 모델 관점에 근거하여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그 개념을 (가) 사례와 연결 지어 서술할 것.
- 사티어(V. Satir)의 가족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쓰고, 밑줄 친 ㉣과 같이 판단한 근거를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자기, 타인, 상황)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할 것.

11. 다음 (가)는 이 교사가 동료교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갓프레드슨(L. Gottfredson)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의 그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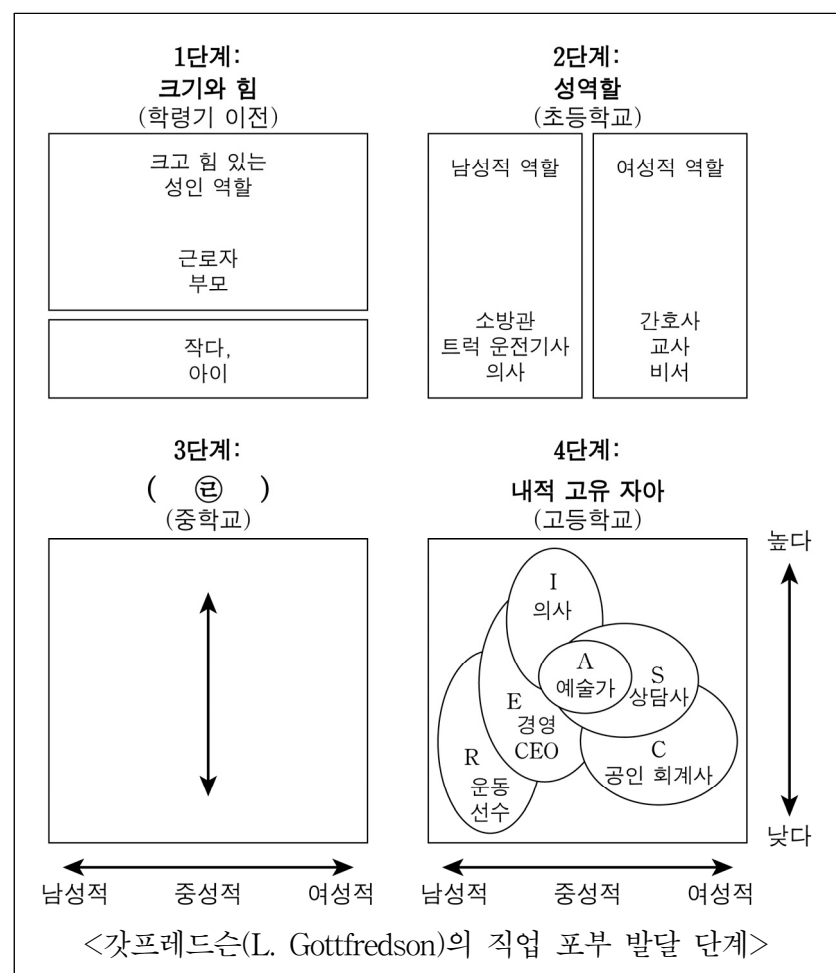
(가)

이 교사: 제가 자유학기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요. 학생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유 교사: 중학교 시기는 자아 인식이 커지면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자아 발달과 진로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갓프레드슨(L. Gottfredson)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이 이론은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생기는 기준으로 직업 포부를 형성한다고 보고, 직업 포부의 형성 과정을 (㉠)와/과 타협으로 설명해요. (㉠)은/는 직업 포부가 줄어드는 과정이고, 타협 단계는 접근 가능한 직업을 택하는 과정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게 자신의 직업 선택의 기준과 가능성 있는 미래 직업 목록을 탐색하게 한다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 교사: 중학교 시기에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에 부모의 영향도 받지만 친구, 친척, 교사처럼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 자신이 타인으로 부터 어떻게 진로 선택의 도움을 얻는지와 ㉢ 타인이 자신의 진로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관여하는지에 대해 탐색할 수 있어요. 저도 존경했던 중학교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받아서 교사의 꿈을 키웠고 그 결과 교사가 되었거든요.

(나)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필립스(S. Phillips)의 발달-관계 모델에 근거하여 밑줄 친 ㉡과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나)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 중 3단계의 특징을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12.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민수(중1, 남)의 어머니와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어머니: 민수가 예민해서 걱정이예요. 평소에도 좀 예민한 편이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상담교사: 민수가 시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예민해져서 걱정이지군요. 민수는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 다른 친구들보다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이번 시험은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네요. 문제가 잘 풀리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지쳐요.

상담교사: 그렇군요. 민수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머니: 민수는 어릴 때부터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 어린이집에 갈 때는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 했으면서도, 제가 데리러 가면 저를 때리고 밀치기도 했어요. 제가 안아줘도 계속 울어서 달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상담교사: 민수가 잘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 갓난아이 때부터 민수는 쉽게 놀라고 잠에서 잘 깼어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 성이 나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유난히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 잠지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살펴보았어요. 격렬한 신체 놀이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상담교사: 그랬군요. 어릴 때부터 민수를 키우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작성 방법>—

- 클로닝거(C.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기질 차원의 명칭을 쓸 것.
- 에인스워스(M. Ainsworth)가 주장한 4가지 애착 유형에 근거하여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애착 유형을 쓸 것.
- 버스와 폴민(A. Buss & R. Polmin)의 EAS모형에 근거하여 밑줄 친 ㉢과 ㉣에 해당하는 기질 차원의 개념을 순서대로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